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一然)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에 철 해

동국대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을 고찰하고 한국교육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먼저,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당시의 고려사회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았다. 일연의 역사의식에는 당시 고려사회의 시대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을 신이(神異) 사관, 민족주의 사관, 불교 사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첫째, 신이 사관은 국가적으로 몽고족의 침략이라는 상황에서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자하는 정신사관의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민족주의 사관은 우리 민족이 단군(檀君)의 후손으로서 단일 민족이라는 자각과 국가의식의 반영이었다. 셋째, 불교 사관은 불교신앙의 힘으로 당시의 국가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불국토 사상과 호국불교 사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연의 세 가지 사관은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저항의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연의 역사의식은 한국의 고대 교육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며 한국 고대사를 정립(鼎立)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둘째,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을 통해서 교육이라는 삶의 양식과 그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연의 신이(神異)사관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hermeneutical)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삼국유사』에 수록된 많은 불교설화들은 기존의 문학교육적 차원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으로서 불교교육적 차원에서 연구할 때 큰 의의가 있다.

핵심 주제어 : 삼국유사, 일연, 역사의식, 신이(神異) 사관, 민족주의 사관, 불교 사관, 불교교육

I. 서론

『삼국유사』의 성격에 대해서는 역사서(歷史書)¹⁾, 불교사서(佛敎史書) 혹은 불교문화사(佛敎文化史書)²⁾, 설화집(說話集)³⁾ 등 연구자의 전공과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를 역사서로 보고 이 책에 나타난 일연(一然)의 역사의식⁴⁾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역사인식에 있어서 한 단계의 새로운 진전은 기존의 인식체계와 그것의 바탕이 되고 있는 자기 사회의 현실적 문제점을 적확(的確)히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절실한 의식과, 전승 사료(史料)를 합리적으로 비판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몽고군의 침략에 대한 30여 년에 걸친 항쟁 속에서 고려인들 사이에는 동일 역사체로서의 그들의 존재에 대한 민족적 자의식이 강렬해졌고,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민족의 역사의 원천과 변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고난과 현실적 위기의식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역사의식은 당대인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이어졌다. 그리고 그 역사의식은 『삼국유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⁵⁾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기백은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한국사의 기원에 대해 고조선 → 위만조선 → 마한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세움으로써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또 신이(神異)한 것임을 자랑스럽게 기술하였다고 보았다.⁶⁾ 김태영도 『삼국유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 1)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 (상)』, 이우성·강만길(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6, 162-165쪽.; 김철준, 「고려 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 삼국사기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9, 1973, 59-86쪽.; 김태영, 「일연의 역사의식」, 『경회사학』 5, 1974, 백산자료원, 『삼국유사연구논집(1)』, 서울: 백산자료원, 1986.에 재수록.
- 2)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논문집』 13, 1974, 11-28.;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20, 1978, 19-60쪽.;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38, 1982, 27-54쪽.
- 3)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38, 1982, 55-85.; 황패강, 「삼국유사와 불교설화」, 동북아세아연구회(편), 『삼국유사의 연구』, 서울: 중앙출판, 1982, 169-205쪽.
- 4) ‘역사의식(歷史意識)’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기타의 역사에 대한 여러 관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역사의식은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재 자신이 처한 시대가 어떠한 역사적 위치에 있는가를 인식하고 현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앞으로 역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등의 의식이다. 그런데 역사의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역사인식(歷史認識)’이 있다. 대체로 역사의식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당대의 사조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임에 대하여 역사인식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이해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자는 후자보다 의미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역사의식과 역사인식은 혼용되고 있다(정구복, 『한국인의 역사의식 - 고대편 -』, 서울: 고려원, 1989, 51쪽 참조.).
- 5)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38, 1982, 150-151쪽.

하늘과 직결되는 신성한 것으로 보고 자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고조선에서 비롯되는 역사 계승의식에 초점을 두고 역사전통을 자주적으로 표현했다고 하였다.⁷⁾ 또 김태영은 다른 논문에서 일연의 역사의식이 “전통적인 자주와 인간 회복의 역설”에 있었다고 하였다. 즉, “역사 전통의 유구성과 신성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시대적인 난파(難破)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찾아내고자 한 것”⁸⁾이라는 것이다. 김상현 또한 일연은 우리 나라의 역사 전통을 불교 신앙을 중심으로 파악했고, 따라서 불교사 내지는 정신사(精神史)를 강조하는 입장에 있었으며, 그의 불교사 인식은 불국토 및 호국불교 사상의 강조, 당시 불교계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 의식과 대중불교 및 민중에 대한 의식이 강조된 점 등을 지적했었다.⁹⁾ 한편 이재운은 일연이 『삼국유사』 기이편 ‘말갈(靺鞨) 발해(渤海)’조에서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로 인정하지 않고 신라에 대립하였던 말갈의 일부로 규정하여 일연의 역사인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¹⁰⁾ 최상천도 『삼국유사』의 상고사 체계는 정연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삼한의 역사적 위치 설정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여, 마한 → 고구려, 변한 → 백제, 진한 → 신라의 지역적 동일성에 의한 계승을 인정하였고, 신라 계승의식이 『삼국사기』에 비해 더 확실해 졌다고 보았다.¹¹⁾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해보면 일연의 역사의식은 신이 사관, 민족주의 사관, 불교 사관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삼국유사』에는 당시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으로서 신이 사관,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사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불교사관이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신이 사관, 민족주의 사관, 불교 사관을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사관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여 일연의 역사의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사적 의의를 고찰하겠다.

II.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一然)의 역사의식(歷史意識)

역사의식은 그 시대의 산물이며, 당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

6) 이기백, 1976, 앞의 글.

7) 김태영, 「일연의 역사의식」, 『경회사학』 5, 1974.; 백산자료원, 『삼국유사연구논선집(1)』, 서울: 백산자료원, 1986.

8)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이우성·강만길(편), 『한국의 역사인식(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76, 127-147쪽.

9)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20, 1978, 19-60쪽.

10)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 전북대 사학회, 『전북사학』 8, 1984, 1-16쪽.

11) 최상천, 「삼국유사에 나타난 국가계승의식의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1, 1985, 241-258쪽.

의식이 어떻게 역사 서술로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연의 역사의식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일연이 활동했던 고려 후기의 시대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연은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에 84세로 생을 마쳤다. 희종, 강종, 고종, 원종, 충렬왕 등 5대에 걸치는 이 시기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중첩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무인 집권층의 횡포에 반발하는 농민과 천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씨정권은 독재정권을 구축해 갔고, 몽고와의 전쟁을 이유로 무인집권층과 왕실이 모두 강화도로 옮겨간 이후의 전국토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민중들은 몽고의 침략세력과 국내의 지배 권력에 대한 싸움을 동시에 벌이는 이중의 항전을 전개해야”¹²⁾했다. 원종 11년(1270)에 이루어진 몽고와의 강화와 개경 환도는 대내적으로는 무인정권의 종막을, 대외적으로는 몽고와의 전쟁 상태의 종결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원(元)의 간섭을 받기 시작한 뒤를 이어 원에 의해 고려에 강요된 일본 정벌을 위한 경제적·군사적 부담은 30여년의 전쟁으로 피폐할대로 피폐한 고려사회에는 설상가상의 짐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수난을 겪는 동안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집단 의식은 강화되고 있었고, 현실적 고통을 민족의 자주적인 전통의식의 강조를 통해 극복해 보려는 역사의식 또한 고조되고 있었다.¹³⁾ 이러한 저항의식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며, 동일한 조상의 다같은 후손이라는 민족의식이 싹튼 것이다. 일연이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우리 민족 공동의 시조인 단군에 관한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몽고족의 압박과 간섭이 격심하였던 고려 후기에 일기 시작한 우리 민족 공동 시조로서의 단군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단군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한국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즉, 단군(고조선)에서 삼국에 이르는 한국 고대사의 역사적 추이를 주목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¹⁴⁾ 따라서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에는 고조선(古朝鮮), 위만조선(魏滿朝鮮), 마한(馬韓), 이부(二府), 칠십이국(七十二國), 낙랑국(樂浪國), 북대방(北帶方), 남대방(南帶方), 말갈(靺鞨)과 발해(渤海), 이서국(伊西國), 오가야(五伽倻), 북부여(北夫餘), 동부여(東夫餘), 고구려(高句麗), 변한(卞韓)과 백제(百濟), 진한(辰韓) 등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보여주하고자 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 속에 존재해온 불교 문화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불교문화 전통과 관련이 적은 단군·기자·위만 그리고 삼한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상고사의 시야를 넓혀주고 상고시대 제왕의 위업을 과시하려고 한 것은 일연이 역사의식이 불교적 세계관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1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74, 13쪽.

13) 김상현, 1978, 앞의 글, 23쪽.

14) 하현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관, 삼성출판사, 『독서생활』 6월호, 1976, 249- 250쪽.

그리하여 『삼국유사』가 후세에 영향을 끼친 것도 불교사 서술보다는 오히려 상고사의 복원 부분이며, 이 부분 때문에 근대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¹⁵⁾

1. 신이(神異) 사관

일연의 역사의식은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와 몽고족의 침략에 의해 황폐화된 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서 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기준을 찾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 하려고 하였다. 『삼국유사』보다 150년 가량 앞서 편찬된 관찬(官撰) 사서인 김부식(金富軾)의 『삼국사기』는 정치제도 중심의 현실 문제를 주로 다룬 것이었고, 그 편찬을 주도한 김부식 등의 역사의식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토대로 하는 유교적 정치 사관이었다. 이러한 유교적 정치 사관은 고려 전기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관찬 사서를 중심으로 지배적인 조류를 이루었다. 이들 관찬 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정치 사관은 합리주의의 추구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에서 보듯이 전통문화의 이해 범위를 축소시키고 사회 모순에 대한 인식을 회피하려는 문제점도 보여준다. 그런데 고려의 정치가 몽고의 간섭을 받는 시기에 이르면 유교적 정치사관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민족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외세의 압력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신사관(精神史觀)적 역사의식이 나타나기 마련이다.¹⁶⁾ 『삼국유사』에는 이러한 정신사관이 신이 사관의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일연의 신이 사관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삼국유사』 기이(紀異)편의 서문인데, 그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대체로 옛날 성인들은 예(禮)와 악(樂)으로써 나라를 일으키고 인(仁)과 의(義)로써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괴력난신(怪力亂神)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부명(符命)과 도록(圖籙)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연후라야 큰 변화의 기회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기도 하고, 또 대업(大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스러운 데서 탄생했다는 것이 무엇

15) 한영우, 「고려시대의 역사의식과 역사서술」, 조동걸·한영우·박찬승(역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53-54쪽.

16) 정병삼, 「일연」, 조동걸·한영우·박찬승(역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82-83쪽.

이와 관련하여 김상현은 “일제(日帝) 강점기 시대에 민족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정신사관(精神史觀)이 강조되었듯이,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 어려울 때 나타날 수 있는 역사인식은 정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기울기가 쉽다. 이러한 성격을 강하게 띠고 나타난 것이 『삼국유사』이다.”라고 하였다(김상현, 1978, 앞의 글, 25쪽.).

이 괴이하랴. 이것이 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¹⁷⁾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연은 신이(神異)를 기이(怪)한 것이 아닌 신성한 문화적 원리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이적(異迹)의 기록을 삼국의 시조(始祖)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삼국의 전체 신이사(神異事)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중국 고대 제왕들의 신이로운 탄생설화를 덧붙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일연은 신화를 신화 자체로서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현실이나 역사에 또는 경험적인 사실과 공존·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곧 일연의 역사인식 방법이었다.¹⁸⁾ 그는 무신정권의 폭정과 몽고의 침략 등을 겪으면서 당해야만 했던 민족의 고난을 상하, 귀천, 승속의 차별 없이 신성(神聖)의 가호를 받아 온 역사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의 체현(體現)으로 극복하고, 자국(自國)의 역사를 인식하려고 했던 것이다.

『삼국유사』의 전체에 걸쳐 저변을 이루는 신이(神異)에 대한 인식은 일연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역사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는 중국 문화와 대등한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원천이 된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신이한 설화 형태로 전승되던 많은 고대 사료를 분해하여 개서(改書)함으로써 그 구체적 성격이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도록 변개(變改)한 데 비해,¹⁹⁾ 일연은 신이한 설화들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고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신이에 대한 많은 기록을 수록한 것이 『삼국유사』의 가장 큰 특징²⁰⁾이라고 해서 일연이 신이만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삼국유사』에는 신이가 아닌 합리적인 역사적 사실도 상당히 수록되어 있다.²¹⁾ 고대 사료(史料) 그 자체가 갖는 신이적인 성격과 특히 종교사의 경우 이러한 성격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의 사유는 다분히 초자연적이고 신이적이며 영웅적인 요소가 짙었다. 이 때문에 고대사회에서

17) 『三國遺事』 卷1, 紀異. “叙曰 大抵古之聖人 方其禮樂興邦 仁義設教 則怪力亂神 在所不語 然而帝王之將興也 膺符命 受圖籙 必有以異於人者 然後能乘大變 握大器 成大業也 …… 然則三國之始祖 皆發乎神異 何足怪哉 此神異之所以漸諸篇也 意在斯焉”

18) 홍윤식, 「삼국유사와 불교의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16, 1979, 230쪽.

19) 정병삼, 1994, 앞의 글, 85-86쪽.

20) 이기백, 1976, 앞의 글, 120쪽.

이와 관련하여 김태영은 『삼국유사』의 전반에 실린 사실에는 신이(神異)가 바탕이 되어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의 독자적인 대등성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역사 속의 신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표현이라고 하였다(김태영, 1974, 앞의 글, 144쪽.).

21) 『삼국유사』 기이편을 검토해 보면, 원칙적으로 신이의 기록으로 일관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기이편의 모든 기사가 신이한 일들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김유신(金庾信)조, 고조선(古朝鮮)조, 위만조선(衛滿朝鮮)조, 마한(馬韓)조, 이서국(伊西國)조, 오가야(五伽倻)조 등이다.

는 역사적 사실마저도 신화화되고²²⁾ 전설화 되었으며 혹은 설화화되었다. 그리고 민속적인 전승이나 구술(口述), 혹은 문학적인 설화나 전설이 역사 기록의 담당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다.²³⁾ 특히 종교와 관련한 설화는 더욱 신이적인 성격으로 윤색되어 나타났다. 종교사에는 비합리적이고 초현실적인 신앙체험이 역사화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²⁴⁾

고려사회에서 신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일연의 신이 사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는다²⁵⁾는 공자(孔子)의 말을 존중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유학자들의 유교적 정치사관이 관찬(官撰) 사서의 편찬을 중심으로 한 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사고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회 전체가 합리적인 사고로 풍미해 있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 정신사(精神史)적으로 볼 때 고려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종교적인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산수(山水)의 형세를 살펴서 신비적인 설명을 붙여 그것이 인간생활에 미치게 될 길흉과 화복을 설명하려는 주장인 풍수지리설이 고려 사회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정신적 풍토 위에 전개된 불교사상 또한 다분히 미신적인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고도로 발달된 신비주의의 철학적 사유의 극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원시적인 주술과도 상통하는 밀교(密敎)의 성행”²⁷⁾이라든지, 매우 극성했던 “불교의 호국사상까지도 기복적이고 의식적인 각종 도량이나 잡다한 행사에 의지하여 전개되었던 사실”²⁸⁾ 등은 불교의 이같은 경향을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신이에 대한 당시의 일반적인 인식이 일연의 신이 사관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연이 『삼국유사』 전편을 통해 강조하는 신이(神異)는 결국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원천은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특히 『삼국유사』 기이편은 역사적 신이에 대한 기록을 통해 우리 고대사를 민족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일연이 여기서 보인 고조선에서 삼한을 거쳐 삼국에 계승되는 뚜렷한 고대사 체계는 『동국통감』이나 『동사강목』 등 대표적인 사서에 채용되어 오랫동안

22) 역사의 신화화에 대하여 장덕순은 “전설의 역사성에다 신화적 신성을 부여하였을 때 그 인물들은 신화적 전설 속의 인물로 승화한다. 역사를 신화화하는 이 노력 속에서 고려사회는 성(聖)의 원리 - 그것도 민속적 원리가 세속 원리보다, 심지어 왕조의 세속적 권위를 뒷받침한 원리보다 우세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출판부, 1970, 55-69쪽.).

23) 김철준은 “통일신라 때까지도 역사의식이 설화 형태의 것으로 전승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철준, 앞의 글, 82쪽.).

24)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20, 1978, 48-49쪽.

25) 괴이함과 용력(勇力)과 패란(悖亂)과 귀신(鬼神)을 말하지 않는다(《論語》述而, 子不語 怪力亂神).

26) 김철준, 「한국고대정치적 성격과 중세정치사상의 성립과정」 『동방학보』 10, 1969,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제수록, 132쪽.

27) 안계현, 「불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2, 1997, 247쪽.

28) 김상현, 「고려시대의 호국불교 연구」, 단국대 대학원, 『학술논총』 1, 1976, 217쪽.

우리 통사를 이루어왔다.²⁹⁾

역사적 신이에 대한 기록은 한국 고대사를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이해해보려는 일연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³⁰⁾ 일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중국이 아닌 하늘[天]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이 천상에 있는 환인(桓因)의 손자였다는가,³¹⁾ 신라 호국삼보(胡國三寶)의 하나인 옥대(玉帶)는 하늘에서 주었다든가,³²⁾ 통일신라의 평화의 상징인 만파식적(萬波息笛)이 문무왕의 변신인 해룡(海龍)과 김유신(金庾信)의 후신인 천신(天神)이 합심하여 만들어준 것이었다³³⁾는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민족주의 사관

역사의식은 평화로운 시대보다는 혼란한 시대에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과 그 역사는 더욱 격렬하게 인식되는 것이다.³⁴⁾ 왜냐하면 나라가 외침을 당했을 때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근거를 민족의 고유한 정신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사관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연은 신이(神異)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우고자 하였다. 우선 국사의 시작을 단군의 고조선으로 잡아 중국 역사의 시조라는 요(堯)와 동시대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또한 직접 천(天)에 연결시키고 있다. 일연은 기이편의 서두에 ‘단군왕검’이 중국의 상고시대 ‘요제(堯帝)’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건국했다는 사실과 중국측 기록인 『위서(魏書)』와 본국측 기록인 『고기(古記)』를 같이 인용하여 그 내역을 밝혔으며, 특히 고기에서는 단군의 건국신화를 원형 그대로 상세히 기술하고는, 단군이 중국의 요제가 즉위한 지 50년 만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국호를 ‘조선’이라 일컬었다고 했다.³⁵⁾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국 기원도 중국과 같이 오래되었음을 내세운 것이었다.

29) 정병삼, 1994, 앞의 글, 92-93쪽.

30) 이기백, 1976, 앞의 글, 121쪽.

31)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32) 『三國遺事』 卷1 紀異, 天賜玉帶.

33) 『三國遺事』 卷2 紀異, 萬波息笛.

34) 조선 중기의 왜(倭)·호군(胡軍)의 침략과 그 결과에 그러했고, 고려 중기의 몽고군의 유린(蹂躪)과 그 후에 그러했으며, 그 이전의 삼국 쟁투와 대중국항쟁에서도 그러했다. 여기에서 단군의 문제도 바로 고려 후기에 나타났고, 조선의 교체가 있었던 얼마 후인 세종때 두드러졌으며, 조선 후기에 다시 부각되었다는 사정을 놓고 볼 때 역사의식의 변화 과정에서 의례히 뒤따르는 민족의 숙제와도 같았다(황원구, 「실학파의 역사인식」,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1, 191쪽.).

35)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또한 『삼국유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상고시대 ‘천자(天子)’의 칭호는 곧 하늘에서 내려 온 천제(天帝)의 아들이란 것이며,³⁶⁾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은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의 아들이란 것이며,³⁷⁾ 신라의 시조 혁거세왕은 하늘에서 내려 온 알[卵] 속에서 나온 하늘의 아들이란 것이며,³⁸⁾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은 하늘에서 내려 온 황금색 알에서 나온 하늘의 아들이란 것이다.³⁹⁾ 따라서 중국의 ‘천자’는 곧 천하를 통치한 군주의 명칭이고, 우리나라의 ‘천자’는 곧 하늘의 아들인 천자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하늘과 직접 연결되는 자주적인 역사이고, 결코 중국에 예속된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다.⁴⁰⁾ 특히, 삼국유사 혁거세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에 당시 사람들은 다투어 치하하기를, ‘이제 천자(天子)가 이미 내려왔으니 마땅히 덕 있는 왕후(王后)를 찾아 배필을 삼아야 합니다’라고 했다.”⁴¹⁾라고 하여 천자란 칭호를 쓰고 있어, 우리나라의 군주도 중국의 제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의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⁴²⁾

국조(國祖)로서의 단군에 관한 설화는 『삼국유사』 이전의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었지만, 이는 고려시대의 지배층이 공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배층은 이른바 유교적인 예교(禮敎)의 시초를 기자(箕子)에서 찾고, 그럼으로써 국사의 시작을 은연 중에 중국에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역사의식은 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기자를 단군의 고조선 속에 흡수시켜 놓았다. 즉, 기이편에서 삼국 이전의 여러 국가들을 각기 별개의 조항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기자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고, 다만 단군의 고조선조 말미에서 약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⁴³⁾ 그리고 단군 이후 동족국가들의 계승관계를, 대체로 고조선 → 위만조선 → 부여·마한으로 연결되는 국사의 계통을 잡고, 삼국시대를 대체로 이 뒤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는 곧 자국의 역사가 하늘과 직결되는 신성한 것이며, 또 그 자주적 전승이 유원(悠遠)한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의식의 소산이었다. 원(元)의 정치적

36)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

37) 『三國遺事』 卷1 紀異, 高句麗.

38) 『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

39) 『三國遺事』 卷2 紀異, 駕洛國記.

40) 이재호, 1983, 앞의 글, 7쪽.

41) 『三國遺事』 卷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覓有德女君配之”

42)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 전북대 사학회, 『전북사학』 8, 1984, 13쪽.

43) 이러한 기자에 대한 간략한 기술은 대체로 일연이 승려였기 때문에 나타난 인식의 차이로 보는 의견[노태돈]도 있으나 그 보다는 당시 몽고의 압제 하에서 중국의 계보와 연관되어 있는 기자를 내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연의 보다 자각된 민족주체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일연은 낙랑(樂浪郡)조에서도 고대 한(漢)의 낙랑군의 땅에 낙랑국이 존재하였던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며, 다시 북대방(北帶方)조에서도 그것이 전한(前漢)대에는 한(漢)의 대방군(帶方郡)에 속하였으나 뒤에 나라로 잠칭(潛稱) 독립하였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이재운, 1984, 앞의 글, 4쪽).

간섭이 심했던 당시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민족적 자주의식의 표현이었다. 즉, 『삼국유사』에서 중국에 대한 자국의 역사의 대등성과 자주성을 역설하고 있음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뿌리칠 수 없었던 당시의 현실에 대한 저항적 민족의식의 표현이었다.⁴⁴⁾

이러한 저항의식은 『삼국유사』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장춘랑(長春郎)과 파랑(罷郎)은 백제의 군사와 황산(黃山)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후, 태종의 꿈에 나타나서 당나라 장군 소정방(蘇定方)의 위협에 놀려 쫓겨다니는 것을 국왕에게 호소하고 있는데,⁴⁵⁾ 이는 동맹(同盟)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던 당나라 군대의 횡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당나라 장수 이적(李勣)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습격하려고 하자 명랑법사(明朗法師)에게 청하여 비법(秘法)으로 빌게하여 격퇴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⁴⁶⁾ 그리고 원래 33천(天)의 한 사람으로 신라에 내려온 김유신의 위훈(偉勳)을 하늘이 당나라 황제에게 계시함으로써 태종무열왕의 묘호(廟號)를 간섭 못하게 하였다는 기사⁴⁷⁾는 신라의 자주성이 불국천(佛國天)과 바로 연결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문무왕은 현세간의 왕자로서, 김유신은 33천의 한 아들이 태어나, 살아서는 통일을 이루었고 죽어서는 다시 각기 동해의 용과 천신이 되어 만파식적(萬波息笛)을 후세에 남겼으니, “이 피리를 불면 적병(敵兵)이 물러가고 병(病)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지면 날이 개며, 바람이 멎고 물결이 가라앉는다.”⁴⁸⁾는 내용은 전란(戰亂) 속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염원의 표현이었다. 금관성(金官城)의 파사석탑(婆娑石塔)은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 황옥(黃玉)이 유연(有緣)의 땅에 항도(航渡)하는데 수신의 방해로 막기 위하여 싣고 온 것이지만, 이 탑은 다만 황옥을 도와 수로왕비가 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년 동안 남으로 왜의 침략을 막아 왔다”고 일연은 찬(讚)하고 있다.⁴⁹⁾ 또 황룡사의 장육상(丈六像)과 9층탑은 외적의 진압을 위한 무상(無上)의 대보(大寶)로서 수 백년을 보존해왔으나, 마침내 몽고의 병화(兵禍)가 이들을 모조리 소신시켜 버렸음을 『삼국유사』는 밝히고 있다.⁵⁰⁾ 이것은 국가의 자주와 평화를 수호해 온, 그리고 야만인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이들 문화재를 파괴해버린 이민족의 잔학성에 대한 간접적인 저항이었다.⁵¹⁾

일연의 민족주의 사관의 의의는 첫째, 단일민족에 대한 자각과 국가의식의 성립, 둘째는 한국사에 대한 시야 확장⁵²⁾이라고 할 수 있다. 기이편에 수록된 한국사의 범위를 살펴보면,

44) 이기백, 1976, 앞의 글, 121-122쪽 참조.

45) 『三國遺事』 卷1 紀異, 長春郎 罷郎.

46) 『三國遺事』 卷2 紀異, 文虎王法敏 및 卷5 神呪, 明朗神印.

47) 『三國遺事』 卷1 紀異, 太宗春秋公.

48) 『三國遺事』 卷2 紀異, 萬波息笛.

49) 『三國遺事』 卷4 塔像, 金官城婆娑石塔.

50)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丈六 및 皇龍寺九層塔.

51) 김태영, 1974, 앞의 글, 143쪽.

52)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가 한국고대사의 시야를 넓혔지만, 『삼국유사』의 한국고대사에 대한

맨 처음 고조선(단군조선)을 필두로, 그 다음에 위만조선, 마한, 진한, 변한, 발해, 5가야, 북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락국 등을 차례로 기술했으며, 특히 신라에 대해서는 시조 혁거세왕으로부터 마지막 왕인 경순왕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을, 그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차례대로 기술하였다. 즉 기이편의 편차에 이러한 범위를 설정한 것은 일연의 의도가 단군을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로 삼고, 남북의 여러 부족국가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왕국을 모두 단군의 후예인 단일 민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불교 사관

불교와 관련하여 『삼국유사』가 일반사와 불교사를 동시에 서술한 책이라는 주장⁵³⁾과 불교사라고 하는 주장⁵⁴⁾이 있다. 또한 이 책을 불교사서(佛敎史書)로 보는 입장에서도 신라불교문화사⁵⁵⁾ 불교신앙의례의 기록⁵⁶⁾ 등으로 나누어진다.⁵⁷⁾

일연은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불교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불교 중심의 역사인식은 비단 일연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고려사회의 문화적 기반이 불교에 있었음을 생각하면, 일연이 불교 중심의 전통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도 불교 사관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승려가 가질 수 있는 의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고려문화의 일반적 의식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⁵⁸⁾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황룡사9층탑의 영험으로 운수가 형통하고 삼한을 통일하였다⁵⁹⁾고 강조하는가 하면, 도교를 숭상하면 국운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보덕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불사(佛寺)를 도관(道館)으로 삼을 정도로 도교를 믿었던 보장왕의 처사가 고구려 멸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파악하기도 했다.⁶⁰⁾ 심지어 단군신화 중의 환인을 불교의 제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의 인식 태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불교 중심으로 이해

인식에는 한계성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삼국유사』는 고조선(왕검조선)에서 진한 사이에 흥망하였던 사회에 대하여 서술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체계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들을 잡다하게 나열하는 데에서 그친 느낌이 있으며, 특히 우리 민족이 세운 부족국가와 중국 세력에 의해 설치된 군국(郡國)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하현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관, 삼성출판사, 『독서생활』 6월호, 1976, 250쪽).

53) 이기백, 1976, 앞의 글, 55쪽.; 김태영, 1974, 앞의 글, 127쪽.

54) 민영규, 「일연의 선불교」, 진단학회, 『진단학보』 36, 1973, 157쪽.

55) 김영태, 1974, 앞의 글.

56) 홍윤식, 「삼국유사와 불교의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16, 1979, 228쪽.

57) 김상현, 「고려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연구회(편), 『한국사학사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5, 97쪽.

58) 정병삼, 1994, 앞의 글, 83쪽.

59)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九層塔.

60) 『三國遺事』 卷3, 興法, 寶藏奉老 普德移庵.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연의 전통의식은 삼한시대 이후 고려시대까지의 문화적 기반이나 정신적 지주가 불교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역사전통에 대한 정당한 파악이었다고 할 수 있다.⁶¹⁾ 이와 같이 고려사회의 문화적·사상적·종교적 기반이 불교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일연의 전통의식이 불교 중심으로 파악되고 그 역사의식을 불교사관 내지 정신사관으로 전개시키고 있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다. 역사전통에 대한 일연의 이같은 인식을 국가사회에 닥친 혼란과 고통 등의 제 모순을 신앙심의 약화때문이라고 보고, 그것을 신앙이 더욱 강렬하고 또한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과, 명리의 추구·신앙의 오도로 빚어진 당시 불교계 및 국가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연의 역사의식의 배경은 “당시 사회의 모순을 청산할 수 있는 정신적 기준을 찾기 위하여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하려는 경향이 모든 문화면에서 일어나고 있던”⁶²⁾ 시대에 살고 있던 그가 우리나라의 역사전통을 불교 중심으로 파악한 데 있고, 그것은 동시에 무신란 이후의 혼란한 사회와 불교계에 대한 자각과 반성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는 일연의 역사의식의 주된 핵심이 불교사관이라고 해서 비합리적인 신앙영이(信仰靈異)가 민족역사를 추진해 온 전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유교의 정치사관을 부정하면서 이에 반발했던 것은 아니다.⁶³⁾

일연의 역사의식은 당시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전통을 재인식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볼 때 일연의 불교 사관이 유교의 정치사관에 대한 부정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유교 사관에 의해 편찬된 대표적인 사서인 『삼국사기』의 사론(史論)을 여러 곳에서 직접 인용하는 것을 보면 일연이 유교 사관을 무시하려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왕력(王曆)편과 기이(紀異)편이 『삼국유사』 전체 분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야말로 일연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연의 관심이 불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일연은 고기(古記)·사서·승전(僧傳)·문집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함은 물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발굴해낸 민간 전승의 수많은 설화와 전설들도 주요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삼국유사』는 단순한 불교사 또는 불교 문화사가 아닌 종합 사서인 것이다.⁶⁴⁾

일연의 불교사관은 『삼국유사』의 체재(體裁)와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삼국유사』는 모두 9편(왕력, 기이,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표(年表)인 왕력편과 기이 편을 제외한 나머지 7편이 모두 불교에 관한 내용이다. 즉, 흥법 편에는 불교의 전래와 수용과정을 밝히고 고승의 행적을 기록하였으며, 탑상 편에는 불교 전래 이후 불상, 탑, 사찰의 유래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었으며, 의해 편에는 고승들의 행적이, 신주 편에는 밀교와 관련한 내용이, 감통 편에는 불교 관계의 영험·감응의 영이한 기록이

61) 김상현, 앞의 글, 25-26쪽.

62) 김철준, 「고려시대 역사인식의 변천」, 『한국문화사론』, 서울: 지식산업사, 1976, 145쪽.

63) 김상현, 앞의 글, 27쪽.

64) 정병삼, 앞의 글, 83-85쪽.

수록되어 있으며, 피은 편에는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은둔한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끝으로 효선 편에는 효행·선행·미담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일연의 불교사관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불교사 영역을 확대하였다. 둘째, 불국토 사상 및 호국불교사상을 강조하였다. 셋째, 당시 불교 및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넷째, 대중불교 및 민중에 대한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⁶⁵⁾ 이 중에서 특히 불국토 사상 및 호국불교 사상이 『삼국유사』에서 매우 강조되어 있다. 일연이 불국토 사상을 강조한 것은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의 표현이었다. 즉 이 나라는 불연(佛緣) 깊은 땅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침략해 온 몽고 야만족에 비해 문화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혼란한 민심에 강렬한 신앙심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불국토 사상의 강조를 통한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식은 호국불교 사상의 강조로도 나타났는데 고려는 부처와 인연이 깊은 땅이기에 부처의 힘에 의해서 지켜져야 하고, 부처가 머무는 불국토이기에 마땅히 침략자로부터 수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⁶⁾ 이와 같은 일연의 불교사관은 민족의 자주정신과 민족의 긍지를 고취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었다.

『삼국유사』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불국토 사상은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이편의 초반에 실린 단군의 출처가 불국천인 환인(桓因)과 제석으로 되어 있다. 신라의 왕통이 불타의 종성(種姓)인 찰리종(刹利種)이라는 설,⁶⁷⁾ 신라의 고도에 남아 있다는 가섭불 연좌석의 전불(前佛) 시대 유허설,⁶⁸⁾ 황룡사 장육상의 조성에 보이는 불국유연설(佛國有緣說)⁶⁹⁾ 등은 모두 신라가 곧 전세불시대 이래의 불국토였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진신 사리의 감응에 따라 요동성의 아육왕탑이 출현하였거나, 신인(神人)의 지시에 의하여 평양성 서쪽에서 영탑(靈塔)을 찾아내었다는 설화⁷⁰⁾는 고구려가 유연(有緣)의 불국토였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지리상으로는 일찍이 우리 민족의 생활무대였던 남북 각지가, 역사상으로는 단군 이래의 고대사 전체가 곧 유연의 불국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국토는 단지 부처만 인연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가령 선도성모(仙桃聖母)는 원래 도가류(道家流)의 소양을 지닌 자였지만, 장생(長生)하는 신선의 술법을

65) 김상현, 앞의 글, 58쪽.

66)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불국토사상을 외침에 대한 자주의식의 발로로 이해했지만, 정출현은 고구려·백제에 대한 신라 지방의 불국토사상, 즉 일연의 신라 정통의식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신라 불국토사상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당위(當爲)로 종종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정출현,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세계관에 대한 고찰」, 안암어문학회, 『어문논집』 28(1), 1989, 169-170쪽, 각주 41. 참고).

67)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九層塔.

68) 『三國遺事』 卷3 塔像, 迦葉佛宴坐石.

69) 『三國遺事』 卷3 塔像, 皇龍寺丈六.

70) 『三國遺事』 卷3 塔像, 遼東城育王塔.

배워 아득한 독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산신이 되어 국가를 진호(鎮護)하고, 한 가난한 여자의 소원을 들어 불상의 조성을 성취시킴으로써 널리 민중을 위한 제도(濟度)의 길을 열어놓기도 하는 보살행(菩薩行)을 다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⁷¹⁾ 또 원래 불국토인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 황옥(黃玉)이 황천상제의 명에 따라 도가의 선물(仙物)인 반도(蟠桃)를 예물로 가지고 와서 마침내 수로왕비(首露王妃)가 되고 치세(治世)를 이루었다는 설화⁷²⁾도, 불(佛)·선(仙) 혼융의 불국토 사상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는 거의 전편에 걸쳐 귀천·빈부·승속의 인간은 물론, 천지 산천의 자연이나 용(龍), 호랑이, 신귀(神鬼), 새, 짐승, 초목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분을 달리하는 대립투쟁의 존재로서 보다는, 다 함께 선량한 이웃으로서 불국토 질서의 실현에 참여하는 존재로 파악되어 있다. 일연에 의하면 자국의 고대사는 이들 다양한 존재들의 혼융의 총화로 엮여지는 장엄한 대행진으로 의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의 중심에는 신이 사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당시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이 정신사관으로서 신이 사관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저항의식이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 민족주의 사관이었다. 불교 사관은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식이 침략한 이민족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표출되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려는 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연의 세 가지 사관은 이민족의 침입에 대한 저항의식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

III.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

이 장에서는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를 살펴보겠다.

우리는 일연이 역사를 바라본 시각, 즉 그의 역사의식을 통해서 한국 고대의 교육사를 연구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한국 고대사 부분의 내용은 국가와 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밝히는 중요한 사료(史料)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대한 교육사 연구는 우리 교육의 원류를 탐구하고, 고유한 전통 교육사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시기의 교육사를 어떻게 정립하는가의 문제는 한국교육사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확립하는가와 연결되는 점에서 우리 교육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며,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⁷⁴⁾

71) 『三國遺事』 卷5 感通, 仙桃聖母隨喜佛事.

72) 『三國遺事』 卷2 紀異, 駕洛國記.

73) 김태영, 앞의 글, 138-139쪽.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 중에서 한국 고대 교육사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연의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연은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단군의 고조선으로 보고 중국 역사의 시조라는 요(堯)와 같은 시대로 인식하였다. 고조선은 우리 역사의 출발점이자 한국교육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조선에 대한 교육제도사 방면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⁷⁵⁾ 고조선과 더불어 한국 고대의 여러 국가들, 즉, 부여, 예, 옥저, 삼한 등에 대한 연구도 회박한 편인데, 『삼국유사』는 이러한 연구들의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일연의 역사의식은 한국 고대사를 정립(鼎立)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는 한국교육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단군신화는 한국 건국신화의 전형이며, 이후의 신화인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수로신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화이다. 우리는 단군신화를 통해서 교육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교육을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을 때,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은 신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설명은 교육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단군신화와 관련한 기존의 교육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병희는 단군신화를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단군신화는 정치와 교육의 통합이라는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이 정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의미한다. 둘째, 단군신화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는 사회에 의한 개인의 계도에 의해, 사회 안에서의 개인의 지위라는 관점에서는 평등성의 실현에 의해 교육의 의미가 규정되고 있다.⁷⁶⁾ 그리고 목영해의 연구에서는 단군신화 중에서 특히 웅녀(熊女)의 탄생 과정 부분을 교육적 안목에서 분석하여 교육원형을 추출하였다. 첫째, 교육의 본질은 인간됨의 과정이다. 둘째, 교육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은 동물적인 본능이나 충동을 제거 통제하는 내용, 도덕과 문화에 관련한 내용, 분별심을 갖지 않게 하는 내용 등 인성교육에 관련한 것이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넷째, 교육적 인간상은 협동적으로 생산하는 인간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교육원형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현재 우리 교육은 교육원형에서 매우 벗어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심각한 병리현상에 빠져 있다⁷⁷⁾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단군신화에 대한 교육사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다.

74) 안경식, 「한국 고대 교육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삼국시대 이전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17, 2005, 98쪽.

75) 안경식의 연구에 의하면 학위 논문이나 일반 학회지에 실린 연구 논문의 경우, 제도사라고 할 만한 논문이 아직 한 편도 발표되지 않았다(안경식, 2005, 위의 글, 114쪽.)

76) 김병희, 「신화와 교육: 단군신화에서의 교육의 의미」,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6(4), 1998, 1-2쪽.

77) 목영해, 「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교육원형」,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14, 2004, 1-19.

그리고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신화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화에는 건국(建國)신화 —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알지신화, 탈해신화 — 는 있지만 창세(創世)신화가 없다. 왜 창세신화가 없는 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화를 ‘신성(神聖)하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에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신이(神異)사관은 이러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신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hermeneutical)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삼국유사』에 수록된 많은 설화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신라와 고려 시대의 현실과 상황을 잘 반영한 설화 작품을 통하여 ‘설화가 함의하는 시대성’을 교육적 가치로 삼을 수 있고, 흥미와 교훈을 주는 작품은 ‘설화의 흥미와 교훈’을 교육적 가치로 삼을 수 있다. 일연은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를 통하여 일반 백성들을 교화하려 했으며, 특히 불교설화를 통해서 신앙심을 고취하였다. 특히, 많은 불교설화들을 채집하고 수록한 것은 일연의 불교사관의 영향이었다. 지금까지 『삼국유사』 설화에 대해서 교과교육의 한 분야인 국어과교육, 더 구체적으로는 문학교육 차원에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설화를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조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불교설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교설화들을 통해서 문학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으로서 불교교육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문학교육 이외의 분야에서 불교설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처의 전생(前生)에 관한 이야기인 본생담(本生譚, Jātaka)에 대해서 유아교육적 차원에서 연구⁷⁸⁾되었으며 그 수도 많지 않은 편이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의식을 신이 사관, 민족주의 사관, 불교 사관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일연의 역사의식의 중심에는 신이 사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당시 이민족의 침략에 대한 저항의식이 정신사관으로서 신이 사관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 저항의식이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된 것이 민족주의 사관이었다. 불교 사관은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식이 침략한 이민족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적 자부심으로 표출되어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본 일연의 역사의식이 갖는 한국교육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78)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는 권은주의 논문(권은주(대원), 「불전설화의 유아교육적 가치 탐색 - Jātaka(본생담)를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이 있다.

먼저,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한국 고대사 부분은 국가와 민족의 기원과 형성을 밝히는 중요한 사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교육사 연구 역시 우리 교육의 원류를 탐구하고, 고유한 전통 교육사상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신화는 한국교육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군신화를 통해서 교육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을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고 보았을 때, 그 기원에 대한 설명은 신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설명은 교육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단군신화 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신화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화를 ‘신성(神聖)하다고 여겨지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에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신이(神異)사관은 이러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신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hermeneutical)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삼국유사』에 실린 수많은 설화들을 교육사적인 측면에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불교설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교설화들을 통해서 문학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으로서 불교교육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연구는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38, 1982
- 김병희. 「신화와 교육: 단군신화에서의 교육의 의미」,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36(4), 1998
-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20, 1978
- _____. 「고려후기의 역사인식」, 한국사연구회(편), 『한국사학사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5
- _____. 「삼국유사의 역사방법론적 고찰」,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23, 1993
-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논문집』 13, 1974
- 김철준. 「고려 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 『삼국사기』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9, 1973
- 김태식.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고려시대인식」, 울산대학교 사학과, 『울산사학』 1, 1987
-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 이우성·강만길(편), 『한국의 역사인식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76

- _____.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 5. 1974. 백산자료원. 『삼국유사연구논집(1)』, 서울: 백산자료원. 1986
-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16. 2007
- 노태돈. 「삼한에 대한 인식의 변천」, 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38. 1982
- 목영해. 「단군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교육원형」,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14. 2004
- 민영규. 「삼국유사」, 동아일보사. 『한국의 고전백선』, 신동아 1969년 1월호 별책부록. 1969
- 박선영. 「불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1. 1995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서울: 박이정. 2002
-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 을유문화사. 『학풍』 2(1). 1949.1. 2(2). 1949.3. 백산자료원(편). 『삼국유사연구논집(1)』, 1986
- 안경식. 「한국 고대 교육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삼국시대 이전의 연구물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17. 2005
-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한국의 역사인식 (상)』, 이우성·강만길(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6
- 이도흙. 「삼국유사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26. 1995
- 이만열. 「민족주의사학의 한국사 인식」,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1
-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 전북대 사학회, 『전북사학』 8, 1984
- 이재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국가의식: 과거의 사대주의사관의 비판에 대하여」, 『부산대논문집』 10. 1969
- _____.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 - 특히 그 체재(體裁)와 의례(義例)에 대하여 -」, 민족문화연구소(편). 『삼국유사연구(상)』,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 일연. 『삼국유사』, 최남선(편), 『증보 삼국유사』, 서울: 서문문화사. 1994
-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구비전승의 한국문학적 고찰』, 서울: 일조각. 1971
- 정구복. 「고려후기의 역사인식과 역사서술」,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1
- _____.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협력실(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보고논총 87-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_____. 『한국인의 역사의식: 고대편』, 서울: 고려원. 1989
- 정병삼. 「신라불교사상사와 『삼국유사』 의해편」, 불교학연구회. 『불교학연구』 16. 2007
- _____. 「일연」, 조동걸·한영우·박찬승(역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정출현, 「삼국유사 소재설화의 세계관에 대한 고찰」, 안암어문학회, 『어문논집』 28(1), 1989
- 하정현, 「삼국유사」 텍스트에 반영된 ‘신이’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03
- _____, 「일연의 신화인식에 관한 연구: 『삼국유사』 기이편 소재 시조신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종교학연구』 10, 1991
- 하현강,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관」, 삼성출판사, 『독서생활』 6월호, 1976
- _____, 「고려시대의 역사계승의식」, 이화사학연구소, 『이화사학연구』 8, 1975
- 한영우, 「고려시대의 역사의식과 역사서술」, 조동걸·한영우·박찬승(역음),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상)』,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홍윤식, 「삼국유사에 있어 구삼국사의 제문제」, 한국사상사학회, 『한국사상사학』 1, 1987
- _____, 「삼국유사와 불교의례」,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보』 16, 1979
- _____,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 황원구, 「실학파의 역사인식」,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1
- 황패강, 「삼국유사와 불교설화」, 동북아세아연구회(편), 『삼국유사의 연구』, 서울: 중앙출판, 1982
- _____, 「삼국유사와 향가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협력실(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보고논총 87-2,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_____, 「신라 불교설화 연구 - 신라호국불교사상의 설화적 전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3, 1973
- _____, 『신라불교설화연구』, 서울: 일지사, 1975

원고접수: 2007년 5월 20일 1차심사: 6월 12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예철해

① 전공: 한국교육사 / 소속: 동국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전임연구원

② 관심영역: 한국 근·현대교육사, 불교의 교육사상, 불교교육

③ 주요논저: 「불교생태학의 주요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생태교육의 방향」, 「교와 불교 태교관(胎敎觀)의 교육적 의미」, 「듀이 교육이론의 연구 동향과 과제: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접근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④ E-mail: chye@dongguk.edu

Abstrac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Ilyeon's Consciousness of History in Samgukyusa(三國遺事)

Ye, Cheol-Hae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riest Ilyeon's consciousness of history shown in *Samgukyusa* and reveal the meaning of the history of educ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firstly, we reviewed the contemporary times when Ilyeon wrote *Samgukyusa*, which is Goryeo Dynasty. It is because in his perception on history the contemporary times in Goryeo was reflected. Based on this, we divided his perception on history into Shini(神異) historical view, nationalism historical view and Buddhist historical view.

First, Shini(神異) historical view was shown as a kind of spiritual historical view to overcome the pressure from the alien powers by emphasizing spiritual perspective in difficult circumstances such as Mongolian Attack. Secondly, nationalism historical view was a reflection of strong national consciousness and awareness of a nation-state as Dangun(檀君)'s descendants. Third, Buddhist historical view was born with the inten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s at that time with the power of Buddhist religion. It is shown as Bulgukto(佛國土) ideology and National Defense Buddhism. When trying to look like this, Ilyeon's three historical views are strongly correlated. The meaning of Ilyeon's History Consciousness shown in *Samgukyusa* in the history of Education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myth of founder in *Samgukyusa* to which Shini(神異) historical view is much reflected, we can discover the genuine form of Korean education, or archetype of the education. Second, many folktales in *Samgukyusa* can be important subject matters of the literature education. Third, we can approach to Ilyeon's worldview shown in *Samgukyusa* with religious education.

Key words : *Samgukyusa*(三國遺事), *Ilyeon*, *Consciousness of History*, *Shini*(神異) *historical view*, *nationalism historical view*, *Buddhistic view of history*, *Buddhistic education*